

“지역복지와 연계... 조계종 복지 미래 전략”

교계 복지시설 양적 성장 중
현장성 높은 복지제도 요구 증가
사찰 신도 자원봉사 교육 통해
신행·복지 결합 모델 구축할 것



지난 7월 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올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7곳을 유치했다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이로써 재단 산하 복지시설 개수는 157 군데로 늘어났다.

이번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받은 곳은 종합사회복지관1곳과 어린이집 3곳, 여성·장애인 시설 3곳이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상봉3동 빛초롱어린이집, 용인 죽전어린이집, 서울 양재어린이집,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중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운영 주체가 2004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2009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4월 1일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게 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한해 평균 20곳 정도 위탁 심사를 통과한다. 복지재단의 사회 기여도와 재단 신뢰도 덕분에 3년 혹은 5년 주기로 있는 재위탁에서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불교계 복지의 전반적 로드맵이나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양적 성장을 해나가는 것은 분명 반길 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복지 인적 자원을 형성해 연구·정책제안 등을 통한 복지 현장성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월 송파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타종교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위해 이미 긴급대출, 저리대출 등 재정지원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었으나 불교계에서는 체계적 형태를 갖춘 지원책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불교 복지가 시설 늘리기에만 치중해왔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다.

조계종의 복지 전진을 담당하는 복지재단 역시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전략 마련에 고심중이다. 지방복지 역량을 기르는 것도 주요 과제중 하나다.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늘어나는 데 따른 관리 감독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사회 거점으로 자리잡은 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보건, 교육, 경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민들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

는 장소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것이 조계종복지재단의 청사진이다. 교구본사 차원의 복지법인 설립 컨설팅 운영을 지원하는 것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 25개 교구본사 중 법인이 설립된 곳은 13곳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의 이같은 계획은 지역 속에서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조계종단의 기초와도 일치한다. 올해 종단은 신년기자회견에서 1사찰 1사회복지시설을 운영, 나눔과 봉사로 헌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와 포교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중이다. 신도들이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찰 자원봉사단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봉사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신도들에게는 불교 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교 위상도 높이고 사회적 지지기반 역시 확보하게 된다.

조계종복지재단측은 “사찰이 관료료를 징수하면서 지역사회에 얼마큼 기여하는지 대중들 사이에 의문이 많다”며 “많은 신도들 역시 대응전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하는 것이 신행활동의 전부다. 절 안에서 어떤 역할도 못 찾고 기도만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사찰을 통해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적으로는 농번기 품앗이 등 노동력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신도들의 상호활동 역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장례식에서 스님 혼자 시다림을 집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불봉사교육을 받은 신도들이 신행복지활동의 일환으로 발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 역시 추구해나간다. 고향 선운사의 보은염 역시 지역민들이 소금생산을 맡고 선운사가 판매에 나서는 형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선운사는 새로운 사찰공동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은 가안이라 어떤 구체적 모델이 마련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 조계종복지재단측의 설명. 그러나 지역 복지 활성화에 불교 미래 역시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교두보 마련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단간 민간 사회복지 정책, 연구, 교육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 모형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방송인 유재석, 나눔의 집에 2천만원 기부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할머니 생활비로 쓰일 예정

방송인 유재석씨가 나눔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무한도전 촬영차 7월 9일 나눔의 집을 방문한 유씨는 1시간 가량 할머니들과 만남을 가졌다. 후원금 전달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사전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나눔의 집측은 “유재석씨가 돌아간 후 후원금계좌로 2천만원을 보내왔다”며 “갑자기 돈을 보내셔서 놀랐고 고마울 뿐”이라고 전했다.

유씨가 후원한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쓰이며 나머지 1천만원은 할머니들 생활비 및 시설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6월 26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2014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에 참가하는 자신의 차량에 '나눔의 집' 문구와 '군 위안부 치유해야 할 역사입니다'란 글귀를 새기고 완주할 것을 약속했으나, 레이스 중 차량 고장으로 완주하지 못했다. 사진은 방송인 유재석씨가 7월 9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배현진 기자**

해인사·운문사 스님 101명 장기기증 등록

생명나눔, 올 상반기 희망등록자 3천여명 돌파

해인사와 운문사 강원 학인스님 전원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만)는 지난 7월 4일 두 곳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벌인 결과 등록 대상 연령 미만자와 기존 회원들을 제외한 스님 101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 의사를 밝힌 스님은 330명이다.

현장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상 연령보다 어린 스님이 나이가 되면 꼭 신청하겠다는 용지를 받아가기도 했다.

재단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장기기증 등록 '스님 1천분 모시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측은 “젊은층 스님들은 흔쾌히 서명에 동참하지만 아직 대다수 스님들 사이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며 사업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꾸준히 종단 및 교육기관을 방문해 관련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한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인원이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번째 주인공은 지난 6월 조계사 백중기도 일제 ‘생명나눔 캠페인’을 통해 참여한 김경미 씨다. 김씨는 “평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월 4일 해인사와 운문사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전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받았다.

몰라 못하고 있었다”며 “가끔 조계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엔 시간을 내서 참여한 것이 마치 3000번째 라니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씨는 이에 대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총 3,296명(7월 10일 기준)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시기 비해 약 1300명 정도 많은 숫자로 월 평균 500명의 희망등록자를 모집한 셈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목표는 5천명이다. **배현진 기자**

위드아시아, 상승기류 타고 봉사행 순풍 행진 중

이사장 지원 스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임명



지난 5월 위드아시아는 부산 남구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사회복지기관에 선정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았다. 사진은 지원 스님과 이춘성 관장.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

복지관, 어린이집 신규 수탁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코이카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가

입했다. 교계 국제후원단체로는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웰스, JTS, 더프라미스, 아름다운동행, 조계종복지재단 등이 가입돼 있다. 당장 8월에는 합천 평화의집과 함께 비핵·평화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위드아시아가 부산 남구로부터 수탁받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연인원 30만명이 이용하는 복지관. 보건복지부 실시 사회복지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기관과 2회 연속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269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드아시아측은 수탁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단체의 국내외 공

익 사업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용호어린이집과 서울 금천구로부터 도담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2014년 9월 1일 개원예정이다.

8월 5~6일 경남 합천에서 열린 비핵·평화대회에서는 69주기 원폭희생자 추모제 역시 열린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원폭피해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행사다.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이를 위해 경남 합천군측과 조율해 지원조례 제정에 공을 들였다.

현재 남아있는 원폭 피해 생존자는 약 2천 6백명. 후손까지 아우르면 1만여명이다.

지난 6월 17일 안전행정부가 설립한 ‘일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로 임명되기도 한 지원 스님은 “불교가 이 시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에 위로, 추모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로 임명된 종교인으로서 지원 스님이 유일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펼친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연예인 팬클럽 후원을 받아 캄보디아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가수 백정강, 인피리트 호야, 박용국 등의 이름을 딴 공부방 3곳이 캄보디아에 만들어져 있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츠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역, 율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7월 21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21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